

뉴에이지 음악 ❁

공해와 스트레스에 찌든 현대인을 위한 자연의 음악”, “듣기 위한 음악이 아닌 느끼기 위한 음악”, “문명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동양 종교적 색채의 서정성을 안겨주기 위한 음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뉴에이지 음악을 여타의 다른 음악들에 비해 서정적이고 철학적이고 심오한 음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에이지 음악은 그 실제 내용에 있어서 불교와 힌두교 등의 동양 종교를 바탕으로 인간의 신성, 윤회, 범신론 등을 그 본질에 담고 있으므로, 오랫동안 이 음악에 심취할 경우 성격파탄, 우울증, 영적인 압박, 정신분열, 귀신들림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크리스천으로서는 마땅히 이런 종류의 음악을 경계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을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음악의 일반적인 요소인 하모니, 리듬, 음조, 구성 등을 분석해 뉴에이지 음악의 특징을 뽑아내려는 시도도 하지만, 그것은 음악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작업일 뿐더러 또한 정확한 분류 방법도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뉴에이지 음악은 그 음악적인 구성이나 특징만을 가지고는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여기에서 일반인들이 비교적 쉽게 뉴에이지 음악을 구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부드럽고 신비한 느낌이 드는 음악 : 주로 신디사이저 등을 이용, 부드럽게 반복되는 불협화음을 사용함으로써 무언가 신비스런 느낌을 던져주고자 하는 음악입니다. 이것을 들으면 마치 강한 자석에 이끌리는 듯한 흡입력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음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명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인간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신성을 발견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2) 가사가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음악 : 뉴에이지 음악은 가사를 통해 어떤 사상을 전달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음악과는 달리 가사가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뉴에이지 음악이 인간의 정상적인 사고에 의존하는 음악이 아닌, 오히려 사고를 혼돈 내지는 마비시켜 신비한 체험 가운데로 이끌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3) 뮤직 비디오나 앨범의 표지에 뉴에이지 상징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악 : 1/4정도 그려진 무지개(정상적인 무지개는 절반의 형태가 보통), 앵크, 타우십자가, 모든 것을 보는 눈(all seeing eye), 피라밋, 스와스티가(만자), 유니콘, 태양신, 페가수스, 태극문양, 수정구나 수정 등 뉴에이지 운동의 여러 가지 상징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한 가지 상징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음악 자체를 뉴에이지 음악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빈번하게 자주 등장한다면 그것은 뉴에이지 음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가수나 작곡자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 연구해볼 것 : 혹자의 음악은 그 곡의 분위기나 제목으로 보서는 어떤 음악인지 분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적인 음악으로 착각할 만한 제목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조지 윈스턴의 앨범 중 ‘Jesus Jesus rest your head’나 MCMXC a.D.의 앨범 중 ‘Way to eternity’, ‘Hallelujah’, ‘The rivers of

belief'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곡의 작곡자나 가수가 어떤 종교와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확대해서 연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뉴에이지들이 기독교의 용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전혀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5) 일반 장르의 음악 속에 뉴에이지적인 가사를 담고 있는 음악 : 이런 음악은 장르로 구분할 때는 록이나 컨트리 음악 등으로 구분하지만 그 실제적인 가사에 있어서는 뉴에이지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지 해리슨의 'My sweet Lord', 존 덴버의 'Rocky mountain high' 등입니다.

6) 태교음악이나 음악치료(music therapy)에 사용되는 음악 중 신비적이거나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음악 : 태교음악이나 음악치료용의 음악이 전부 뉴에이지 음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수 태교음악이나 음악치료용 음악은 그것이 유발할 수 있는 자연적 반응을 넘어서서 신비적이고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 음악은 듣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영적인 억압과 장애를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7) 들을 때 심한 불쾌감이나 두통을 일으키는 음악 :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뉴에이지 음악은 작곡자나 가수로서 그 뉴에이지의 영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성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들을 때는 속이 메스껍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 속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그 음악에 대해 거부하신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음악 스타일로서 뉴에이지 음악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이와는 달리 분명한 뉴에이지 사상과 영성을 가지고 뉴에이지 음악을 추구하는 사람들과의 구별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이 전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상당수 사람들이 그 자신은 뉴에이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하나의 음악 스타일로서 뉴에이지 음악을 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음악을 통한 영적인 폐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스타일의 음악이건 그 음악 자체에 선악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와 영성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물론, 이런 경우에는 외형적인 형태로서의 음악만 가지고 그것의 영적인 본질을 구분하기는 불가능하며 오직 영적인 분별력에 의해서만 그것의 본질과 영향력의 선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뉴에이지 음악가인 스티브 할펀(Steve Halpern)이 스스로 밝힌 다음과 같은 위험성은 분명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뉴에이지 음악가들은 다른 장르와는 달리 명상, 전인치료(holistic healing), 우주적인 각성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를 수행하고 있다... 명상이나 요가, 자연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자신의 음악을 작곡하는 것이다... 많은 뉴에이지 음악가들은 그들이 영감받는 한 방법으로 채널링 (Channeling : 점신술의 일종)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정한다.”

다시 말해 분명한 뉴에이지가 아닌 사람이라도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추구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는 모든 스타일의 음악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음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시 150:3-5)

손종태/기독교문화 사역자

☘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 「새벽나라」 제공
<http://isena.com/>